

김기림 수필 (론) 연구

이경희* · 김문주**

Ⅱ 차례 Ⅱ

- I. 들어가며
- II. 1930년대, 수필의 착근과 개화
- III. (수필론) 수필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전망
- IV. (수필) 근대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문체 의식
- V. 나가며

【국문초록】

1930년대는 수필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생성된 시기이다. 저널리즘의 상업성과 독자의 욕구가 수필작품의 생산을 촉진하였고, 수필 작품의 폭발적 증가는 수필에 대한 담론 생산을 초래하였으며, ‘수필’이란 명칭도 이 무렵 정착하게 된다. 김기림은 서구의 ‘에세이’처럼 한국문학에서 수필도 중요한 문학 장르로 정착할 것을 전망하였다. 그의 이러한 판단은 수필의 형식적 유연성이 급변하는 시대상을 담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의 관점에서 수필은 변화하는 시대를 형상화하는 데 유용한 역사적 형식이었다. 김기림의 수필은 변화하는 도시 경성의 모습과 도시인의 삶을 그려내었다. 그의 수필은 사회적 현실,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준다. 현장성과 사회성을 중시했던 신문기자로서의 감각이 그의 수필을 떠받친 것으로써, 그의 수필에는 근대성에 대한 동경과 비판이라는 이중적 시선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수필에 자주 도입되었던 구어체는 대중적 친숙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용하였으며, 사실적인 묘사는 풍경의 생생함을 담아내는 데 적합한 방법이었다.

* 제1저자,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이러한 필치는 김기림이 수필을 대중적 장르로서 인식하였음을 입증해준다. 김기림의 수필과 수필론은 한국문학사에 수필이 자리 잡고 개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주제어 : 김기림, 1930년대, 수필론, 수필, 문체, 사실적 묘사

I. 들어가며

김기림은 1930년 4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한 후, 학예면에 시를 발표하여 문단활동을 시작한다. 김기림이 수필을 쓰게 된 계기는 신문에 사건 취재 후기와 여행 경험을 기행문 형식으로 연재하게 되면서부터이다.¹⁾ 그는 급변하는 경성이라는 도시와 도시인의 삶, 내면의 고백 등을 담은 개성적 문체의 수필을 많이 남겼다. 자신이 재직했던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신동아』, 『문장』, 『여성』 등 30년대 간행된 많은 잡지에도 수필을 발표했다.²⁾ 김기림은 1930년부터 1950년까지 80여 편의 수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시인이나 비평가로 활동하면서도 수필에 대한 관심과 끈을 놓지

1) 1930년 5월 ‘간도 대사변’이 일어나자 김기림은 사회부 기자로 용정에 특파된다. 그는 1930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간도기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조선일보』에 연재 형식으로 발표한다. 「간도기행」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하여 간도로 이주한 조선 민족이 타향에서 겪는 삶의 실상과 여행의 체험을 기행수필의 형식으로 쓴 글이다. 이 글은 저널리즘적 성격이 강하지만 김기림 특유의 우울한 정조와 감상적 문체가 도드라진, 개성적인 글이다(조영복, 「김기림의 언론활동과 초기 글들의 성격」, 『한국시학연구』11, 한국시학회, 2004.11, pp.361-365. 참조).

2) 김기림의 수필 발표지면은 『조선일보』가 31편, 『신동아』 8편, 『조광』 6편, 『신여성』과 『여성』 각각 4편, 기타 신문이나 잡지 23편 순이다(김학동, 「김기림 작품 연보」, 『김기림 평전』, 새문사, 2001, pp.403-420. 참조). 이는 김기림의 수필이 저널리즘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신문기자였던 김기림은 기사를 취재한 후일담이나 취재 차 지방출장을 다녀온 경험을 저널에 발표하였다.

않았음을 입증한다. 1948년 12월에는 수필집 『바다와 육체』를 평범사에서 간행하였다.³⁾ 문단 활동 20년 동안 활발하게 수필을 썼고, 수필에 대한 이론도 발표한 김기림은 한국 현대 수필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그는 현장성과 시대성을 담보해야 할 신문기자로서의 체험을 수필 형식으로 신문에 실었다. 그의 수필이 시대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여주었던 것도 언론인으로서 직업적 감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경성의 현실을 관찰하고, 이 도시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적은 그의 수필은 시로서 표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김기림은 시나 소설에 비해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수필이 당대적 현실과 삶을 담아내는 데 적합한 문학 형식으로 생각했다. 무엇보다 서구의 에세이에 기초한 수필의 발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조선 문단에도 수필이 하나의 문학 장르로 정착할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⁴⁾ 특히 그의 수필론은 이후 한국 현대 수필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점에서 1930년대 김기림의 수필과 수필론은 현대수필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필집 『바다와 육체』에는 총 41편의 수필과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4부의 『동양에 관한 단장』과 5부의 『속오전의 시론』은 수필이 아니다. 전자는 논문이고, 후자는 시론이다. 1~3부까지 실린 39편의 수필 중에서도 산문시 「기적」(『삼천리』1935.9)과 여행을 주제로 한 「관북기행」(『조선일보』1936.3.14~20) 등은 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수필집에 실린 작품은 모두 37편이 되는 셈이며,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김학동, 위의 책, pp.234-235).

4) 수필의 발전과 문학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김기림의 생각은 1933년 『신동아』9월호에 발표한 「수필·불안·가톨릭시즘」이란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나는 차라리 수필이야말로 소설의 뒤에 올 시대의 총아가 될 문학적 형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 수필의 독특한 맛은 이 시대의 문학의 미지의 처녀지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있을 수필은 이 위에 다분의 근대성을 섭취한 가장 시대적인 예술이 되지나 않을까”라고 밝힌다. 이처럼 그는 조선 문단에서 수필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학으로 자리 잡고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김기림, 「문단시평」, 『신동아』, 1933.9, p.144).

그가 남긴 시와 시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는 데 반해, 그의 수필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김기림의 수필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⁵⁾ 수필은 개인을 둘러싼 당대의 지적·문화적 지형 및 조건, 개인적 삶과 내면의 풍경을 직접 반영하는 장르이다. 그래서 수필 작품에 대한 연구는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맥락화하고, 작가의 일상적 삶과 시대상, 인간적 면모를 천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김기림은 수필에 대한 강한 비평적 자의식을 지닌 작가였고, 서구의 에세이처럼 수필이 시대의 문학으로 성장할 것임을 예견했던 인물이다. 이 글은 1930년대 수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 김기림의 수필(론)이 지닌 독특한 지점이 무엇인지, 그 의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II. 1930년대, 수필의 착근과 개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그 명칭이 정착되기까지 수필은 감상(感想), 수감(隨感), 상화(想華), 수상(隨想), 소품(小品), 잡기(雜記), 일기(日記), 기행(紀行), 찬송(讚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1890년대 후반부터 신문과 잡지를 통해 이미 수필류에 해당하는 글이 많이 생산되었고, 1920년대 초기부터는 ‘수필’이라는 명칭이 잡지에 간간히 등장하기 시작하다⁶⁾

5) 김기림의 수필에 관한 연구로는 조영복의 『김기림 수필에 나타난 일상성』(『외국문학』 43, 1995), 『김기림의 언론활동과 초기 글들의 성격』(『한국시학연구』11, 2004), 김승구의 『김기림 수필에 나타난 대중의 의미』(『동양학』39, 2006), 강심호의 『김기림 시와 수필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고찰-작가의 도시체험을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 3, 2002) 등의 논문이 있다.

6) 1921년 『폐허』2호에 ‘수필’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수필이란 이름 아래 나온 글은

1930년대 들어와서 현대 문학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정착하게 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체험의 내면화가 깊어지고 여기에 부합하는 글쓰기 양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시인이나 소설가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수필 형식의 글로 발표하면서 개인의 내면과 일상적 삶이 공론의 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수필을 둘러싼 몇 가지 문화적 현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필 작품의 폭발적 증가와 질적 성장, 둘째 저널리즘의 상업성 추구하고 독자의 요구 확대, 셋째 수필 이론의 활성화 등이다.

당시 문단 상황을 보면 수필의 발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문학텍스트의 양을 살펴보면 전체 29,928편 가운데 시가 10,305편(34.8%), 수필이 9,157편(30.6%), 소설이 6,165편(20.2%)에 이른다. 필자의 수는 수필, 시, 소설, 평론, 희곡의 순이었다.⁷⁾ 수필의 이러한 성장과 확산은 내적인 동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자발적인 창작보다 매체 편집자의 청탁에 의한 집필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수필을 쓰면서도 수필가로 불

염상섭의 『저수하에서』라는 작품이다. ‘수필’과 유사한 글의 종류를 『창조』에서는 ‘감상문’으로 호명하였다. 이광수는 1922년 『개벽』지에 발표한 「문학에 뜻을 두는 이에게」라는 글에서 ‘에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다. “다소 理智的 要素를 남히 너히 평론 비슷이 쓰기를 조하하는 이는 논문작가 될 것이외다(논문이라는 말이 적당치 아니합니다마는 나는 영어로 Essay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칼라일, 에머슨 가튼이는 영문학에서 유명한 논문학자 Essayist외다.(…) 아마 문학적 논문이라 하면 좀 더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이광수, 「문학에 뜻을 두는 이에게」, 『개벽』21, 1922.3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비평사』, 단국대출판부, 1981, p.291).

7) 수필 필자가 5,145명으로 시 장르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일반 독자나 명망가들이 수필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판단된다(전도현,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텍스트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한국학연구』47, 2013.12, pp.140-144).

리는 사람이 드물었고, 수필 쓰기를 일종의 여가(餘技)로 여기는 장르적 편향이 작동하였다. 임화는 1933년 10월 『조선문학』 좌담회에서 이러한 “객관적 정세”⁸⁾에 의한 수필의 활황이 작가의 내발적인 창작욕이나 수필 장르 내부의 발전 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체와 독자의 요구에 의한 활황이라고 평한 바 있다.

수필의 성장은 신문과 잡지라는 매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체가 지닌 대중성과 상업성은 수필의 생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신문의 학예면은 수필의 발표와 양적 성장의 물질적 토대였으며, 수필은 연재소설과 더불어 문학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확산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⁹⁾ 신문에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 취재 후기나 취재 여행기가 학예면에 실렸고, 이 무렵의 문예지에도 수필을 싣는 고정란이 만들어졌다. 또한, 문예지는 작품의 수록뿐만 아니라 수필의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수필문학 장 전체가 확대·심화되는 데 기여했다. 1930년대 들어서자 『동광』, 『문우』, 『별건곤』 등의 잡지들이 ‘수필란’을 만들어 시인이나 소설가, 기자가 쓴 수필을 실었는데, 특히 『문장』은 창간호부터 폐간호에 이르기까지 수필란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수필이 문학의 장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8) 1933년 10월 16일 『조선문학』이 개최한 「문예좌담회」에서 임화는 “저널리즘이 隨筆을 要求하고 文學의 需要者側은 短한 것을 要求하는것만은 事實”이라며 “小說家나 詩人의 內的要求는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雜誌쟁이들의 廣告出版에잇어서 發展이지 文學으로서의 發展은 안인 줄 압니다.”라며 당시 수필의 부상과 유행이 수필을 둘러싼 저널리즘의 영향으로 평가하였다.

9) 한만수는 당시 신문 학예면의 증면 이유를 검열과 지면의 연성화, 상품 차별화의 필요성, 경제적 효율성, 독자 요구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였고(한만수, 「1930년대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BK21 동아시아학 융합사업단 ‘식민지 검열과 근대 텍스트’ 학술대회 자료집, 2009.2.7., pp.31-35), 김현주는 학예면에 수필이 실린 것은 신문이 대중적·일상적·문화적인 영역에 관심을 두었음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분석하였다(김현주, 「비판의 글쓰기로서 수필」,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pp.180-181).

1938년 10월에는 최초의 수필 전문지 『박문(博文)』(박문서관 간행)이 창간된다.¹⁰⁾ 전문 잡지의 탄생은 수필이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 독자층도 두터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물론 『박문(博文)』의 창간에는 ‘박문서관’에서 발행된 소설집의 판매를 위한 홍보용 전략이 개입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수필이 당대 독자를 유인할 만큼 큰 대중적 인기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필 작품의 활발한 생산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논쟁과 담론의 발생을 가져왔는데, 수필과 그것의 유행을 바라보는 당시 문단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수필의 유행 현상에 대하여 「잡문수필류의 횡행」(조용만, 『조선일보』, 1933), 「수필유행시대」(김관, 『조광』, 1937), 「수필의 범람」(김진섭, 『동아일보』, 1939) 등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복잡한 평가가 이어졌다. 1933년 10월 16일 『조선문학』이 주최한 「수필문학에 관하여」라는 토론회는 수필을 바라보는 당시 문인들의 시선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¹⁾ 이 좌

10) 아동문학가이자 언론인인 최영주가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아 간행된 『박문(博文)』은 1938년 11월에 창간되어 1941년 1월까지 발행된 수필 전문지이다. 『박문(博文)』에는 <거리의 수첩>, <영화가>, <출판토픽> 등 문화계 소식 전반을 싣고 있다. 특히 <편집실 일기초>와 <출판토픽>은 박문서관에서 발간한 서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이었다. 이 두 개의 고정란은 『박문』지가 수필을 활용하여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중적 관심을 끌었던 <청색포스트>란에는 박태원, 김동인, 백철, 변영로, 김남천, 성대훈 등 당시 유명한 소설가 시인, 평론가의 사소한 동정이 실렸다. 유명작가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면서 독자를 확보하려는 상업적 전략이 강하게 드러난다(장두식, 「박문서관 기관지 『박문(博文)』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32, 2013, pp.4-87. 참조).

11) 『조선문학』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기림·유치진·김광섭·백철·서항석·임화·정지용·이무영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당시 수필의 유행과 소설의 수필화 현상에 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임화와 백철, 서항석, 이무영은 수필의 유행현상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김광섭과 김기림은 긍정론을 표명한다. 유치진과 정지용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김기림·임화 외, 「수필문학에 관하여」, 『조선문학』11, 조선문학사, 1933).

담회에 참석한 논자들의 입장은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뉜다. 최재서, 조용만 등의 소설가들은 소설의 위축을 염려하면서 수필의 유행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들은 수필의 유행을 저널리즘과의 결합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 그것의 발전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¹²⁾ 반면, 김기림과 김광섭, 김진섭 등 해외문학과는 서구의 에세이처럼 수필도 독립된 문학 장르로 발전할 것임을 전망하였다. 특히 김기림은 수필의 발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수필을 “소설의 뒤에 올 시대의 총아가 될 문학적 형식”¹³⁾으로 꼽고 수필 발전론을 건지한다. 수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수필의 형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수필이 왕성하게 창작되고 문학의 한 독립 장르로서 온전히 정착·개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학 저널리즘의 확대와 수필 발표지면의 증가, 수필 전문잡지의 창간과 개인 수필집의 발간 등, 1930년대는 한국문학사에 수필이 착근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Ⅲ. (수필론) 수필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전망

김기림은 수필이 서구의 에세이처럼 발전할 것이라는 수필 긍정론을 적극적으로 펼친 대표적인 인물이다. 수필이란 장르에 대한 그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글은 『수필을 위하여』(『신동아』, 1933.9), 『조선문학』에서 주최한 『문예좌담회』(1933.10), 수필집 『바다와 육체』의 『머릿말』(평범사, 1948.

12) “시인이면 시, 소설가면 소설의 푸로팻쑤를 떠나서 수필을 본업으로 삼을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최재서의 발언은 그 당시 소설가들이 수필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최재서, 『문학의 수필화』, 『동아일보』, 1939.2.3).

13) 김기림, 『수필을 위하여』, 『신동아』23, 1933.9(『김기림 전집』3, 심설당, 1988, p.110).

12) 등이 있다. 최초의 수필론인 「수필을 위하여」에서 김기림은 적극적으로 수필이란 장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면 아모 것도 주지 못하는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부로 써여진 느낌을 주는 한편의 수필은, 인생에 대하여 문명에 대하여 어떻게 많은 것을 말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무시의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넓은 천지가 허락되어 있는지 모른다.

② 그렇지만 수필이 가지는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문장에 있다. 나는 최근에 와서 문장이라는 것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고 있다. 문학이란 필경 「언어」로써 되는 것이고 언어의 「콤비네이션」이 문장이다. (...) 작가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학의 어느 분야보다도 수필에 있어서다.

③ 높은 「유머」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유티트」와 대리석같이 찬 이성과 아름다운 논리와 문명과 인생에 대한 찌르는 듯한 「아이러니」와 「파라독스」와 그러한 것들이 짜내는 수필의 독특한 맛은 이 시대의 문학의 미지의 처녀지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있을 수필은 이 위에 다분의 근대성을 섭취한 가장 시대적인 예술이 되지나 않을까.

위의 글들은 김기림 수필론의 총론과도 같다. 이 짧은 글에서 김기림은 수필의 내용과 특성, 문학성, 예술적 요소 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힌다. 첫째, 수필은 인생과 문명, 그 외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는 미래의 문학 형식이다. 둘째, 수필이 문학성을 지니려면 문장이 좋아야 한다. 작가의 개성은 문장에서 발휘된다. 셋째, 유머와 유티트,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는 수필만이 지닌 독특한 맛이다. 넷째, 수필은 자본주의로 전환해가는 시대의 삶을 담아내는 데 가장 적합한 문학이다.

①은 수필 장르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소설이 허구적 구성과 인물이라는 형식에 간혀있기 때문에 현실의 실상을 표현하는 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서구를 보더라도 소설로는 근대의 모순과 사회상을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김기림은 소설에 대하여 “아모 것도 주지 못하는 한편의 소설”¹⁴⁾이라며 비판한다. 일부 소설가들이 수필을 잡문이라 폄하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수필이 소설보다 우월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수필은 작가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이성과 논리로 인생과 문명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소설보다 훨씬 포용력이 넓은 장르라는 것이다.

②는 수필의 문장에 대한 발언이다. 김기림은 문학의 핵심이 언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문학은 살아 있는 말, 시대의 언어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기림 문학론의 핵심 테마를 수필에서도 피력한 것으로써, 문장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수필도 문학의 한 장르로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수필의 문학성은 언어의 결합체인 문장에 있으며, 문장이야말로 작가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라는 입장이다.

③에서 김기림은 “수필이란 말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수입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우리는 이 말을 서양의 Essai 혹은 Essay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¹⁵⁾라며 수필이 서구의 에세이에서 연유했음을 밝히고, 유머와 윗트, 이성과 논리, 아이러니나 패러독스와 같은 복합적이고

14) 『조선문학』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백철이 “짜나리즘 이용으로 근대문학에잇서서 단편이나장편이변하야 썬로즈아 문학으로 발전하는데 짜라서 수필도 발전하는것이라면 결국 계급적으로보와서 발전이 아닐줄압니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말하자, 김기림은 “근본문제가 썬로즈아문학이나 푸로문학을 논하려는것이아니고 형태을 말하려는것이요 썬는 백철씨는 수필은 짜나리즘 이용된다는말인데 다른문학은 이용되지안엇든가요”라며 수필이 시나 소설처럼 독자적 형식을 갖춘 하나의 문학장르임을 주장한다 (『문학좌담회』, 『조선문학』, 1933.11).

15) 김기림, 『머리말』, 『바다와 육체』, 1948.12.1.(『전집』5, p.169).

다면적인 요소들이 수필의 독특한 맛임을 강조한다. 수필에 대한 김기림의 긍정론은 이러한 수필의 개성적 필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수필이 근대성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문학임을 강조하였다. 김기림은 수필에서 당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대성과 역사성을 보았으며, 수필의 형식적 유연함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데 매우 유용한 장르적 특징을 보았던 것이다.

개인의 단편소설은 몸과강제오그라시시대에 왕성하였지만은 지금은 단편 소설 형태를 써나서수필형태로 전환하고있지만습니까 단편소설쓰는 작가에게 있어서 형태의 구속을버리고 자유로운형식으로 자유로운주관으로 새로운힘을 어디서 쓰도록함에 있다는 것이 제가 주장한바입니다.

조선에서 제일수필이 요구되는동기는 백철씨말과갓치 장편이나단편소설을 읽거나쓸수업는 사람들이 만기째문이라고는 생각지안습니까 가장 자유로운 형태로 아무 구속도 맞지안코 마음대로 표현할수있게되는 관계인줄압니다. 한갓 공연한 고적이나 비애적으로된것이라고 생각지마시고 정확한 비판적요소가 포함되어잇는줄 알아야 할것갓습니다.¹⁶⁾

1933년 10월 16일 『조선문학』에서 주최한 『문예좌담회』에서 김기림은 적극적으로 수필을 옹호한다. 이 좌담회에서는 주로 당시 수필의 유행 현상을 진단하고, 수필이 독립된 문학으로 발전 가능한지 논의했는데,¹⁷⁾ 이 자리에서 임화, 백철, 서항석, 이무영 등은 수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해외문학과인 김광섭과 김기림은 수필에 대한 긍정적 발전론을 개진한다. 김기림은 당시 소설의 형식이 수필을 닮은 사소설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움’과 ‘비판적 사

16) 『문학좌담회』, 『조선문학』, 1933.11.

17) 김현주, 앞의 책, pp.151-170.

유' 기능이 수필에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적어도 그때까지의 문학의 정의를 좀 뽐개놓아야 할 것을 느낀다. 사실상 수필이 어떻게 한몫 단단히 문학에 끼어들어야 기행이니 일기니 이른바 기록 문학이니 하는 따위들이 대서게 될 것이다. (...) 더군다나 영미문학에 있어서 수필의 지위란 도저히 홀홀히 할 수가 없지 않은가. (...) 수필이 또 문학이 되려면 시나 소설의 당당한 의관을 차리고 예복을 입으려만 들지 말고, 불평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불평의 편에 서기를 명심하면 그만이다.¹⁸⁾

수필이 시나 소설에 비해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김기림은 여타 문학 장르에 대한 가치를 환기한다. 그는 일기나 기행문 등 기록문학이 지닌 의의와 기능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문학 장르를 다양화·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시나 소설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문학 개념을 다변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시와 소설의 장르적 완결성과 형식미를 추종하지 말고 수필이 지닌 장르적 독자성과 특성을 개발하고 고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기림의 수필론을 정리하자면,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과 '작가의 개성적인 스타일'로 '인생에 대하여 문명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비판정신'을 지닌 장르이며, 미래의 신문명을 담아낼 '가장 시대적인 예술'임과 동시에 '미지의 처녀지'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학이다. 김기림은 일기나 기행문 같은 기록문학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수필장르의 독자적 가치와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1930년대 수필의 장에서 김기림의 수필론이 지닌 특성과 특별한 지점은 무엇인가. 동시대 수필에 대한 견해를 밝힌 김광섭의 수필론과

18) 김기림, 『머리말』, 『바다와 육체』, 1948.12.1.(『전집』5, p.171).

임화의 수필론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의 수필론이 지닌 독특한 지점을 확인해 보자.

수필이란 개성적 심경과 기분에 싸여서 엇더한 대상이나 또는 문제를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그리면서 진지하게 붓가는 대로 써내려는 心機에서의 생산 일 것이다. (...) 수필이란 글자 그대로 붓 가는 대로 써지는 글일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문학보다 더 개성적이며 심경적이며 경험적이다. (...) 거기에는 ‘유머-모어’가 있어야 하겠고 ‘윗트’가 있어야 한다.¹⁹⁾

김광섭은 수필이 ‘개성적’이고 ‘심경적’인 서정문학으로서 개인의 경험을 ‘붓 가는대로’ 쓰는 무형식의 문학으로 정의하고, 서정성을 수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았다. “자연히 유로되는 심경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수필과 시가 공통되며, 그 특성을 ‘서정성’으로 정리한 것이다. ‘서정성’이야말로 수필의 문학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고 김광섭은 보았다. 수필을 ‘붓 가는 대로’ 쓰는 무형식의 형식으로 본 김광섭과 ‘가장 자유로운 형태’로 인식했던 김기림은 모두 수필의 형식적 유연성과 자유로움을 강조했다. 수필에 ‘유머와 윗트’가 있어야 흥미와 긴장이 유지된다고 본 점에서 공통된다. 아울러 김광섭과 김기림 수필론의 뿌리는 서구의 에세이론에 닿아 있다. 두 사람은 서구문학에서 에세이의 독자적 위상과 발전에 기대어 조선문단에서도 수필이 착근하고 융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김광섭이 ‘개인의 심경에서 우러나는 서정성’을 강조한 반면, 김기림은 ‘시대성과 비판적 요소’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둘의 수필론은 갈린다. 김광섭은 서정성과 문학성을 중시한 데 반해, 김기림은 수필의 사회적 성격에 보다 관심을 가진 셈이다.

19) 김광섭, 『수필문학소고』, 『문학』, 1934.1.

수필이 논문처럼 논리적 조작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와 장르로서의 문학처럼 고유한 구조를 갖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나, 사물이나 생각을 형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는 데 과학이나 논문과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대신 문학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가의 사상이 도그마에서 교양으로 혈육 속에 용해되어, 교양은 그 삶의 모든 생활과 감정의 세부에까지 삼투하고, 그것이 그의 생혈의 전부를 통하여 여유 있는 자유로운 한 개 인성으로서의 모랄로 작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²⁰⁾

임화는 1933년에 열린 좌담회에서 “수필이 소설이나 시보다 광대한 생활상을 포함하지 못한다”²¹⁾며 수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1938년에 쓴 위의 글에서는 수필을 문학의 한 장르로서 인정한다.²²⁾ 그는 수필이 시나 소설처럼 고유한 구조를 갖지 못한 불완전한 문학이지만, ‘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실’과 ‘사상’을 전달하는 점에서 문학이라고 본 것이다. 임화 수필론의 핵심은 ‘사상’과 ‘모랄’이다. ‘사상의 모랄화로서의 수필’은 사상과 현실의 통일된 차원을 말한다.²³⁾ 수필에서는 작가의 사상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양이나 인성으로 녹아 들어 보다 높은 차원의 모랄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화는 수필을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지점에 두었으며, 사상과 교양, 모랄이 담겨 있어야 좋은 수필이라고 보았다. 그는 수필을 개인적 교양과 윤리의 영역

20) 임화, 『수필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박정선 편, 『수필론』, 『언제나 지상은 아름답다 - 임화 산문선집』, 역락, 2012, p.334.

21) 『문학좌담회』, 『조선문학』, 1933.11.

22) 1933년 10월 『조선문학』 좌담회에서 임화는 “부르주아 사회의 몰락해 가는 사조의 변주곡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수필이 장래에 문학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필에 대한 임화의 생각은 변화한다. 『수필론-문학 장르로서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193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동아일보』에 수록한 수필론은 수필에 대한 임화의 견해의 변화를 보여준다.

23) 신재기, 『임화의 수필론 연구』, 『우리말글』42, 2008.4, p.273.

으로 인식하였지만, 수필이라는 장르가 지닌 시대적 성격을 인정하지는 않았다.²⁴⁾ 김기림이 수필을 ‘가장 시대적인 예술’로 보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시대성’과 ‘역사성’을 강조한 김기림의 수필에 관한 인식은 ‘서정성’을 중시한 김광섭, ‘사상과 모랄’로서의 문학을 주장한 임화의 수필론과 대비되면서 나름의 독자적인 수필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김기림은 수필이 소설을 대체할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았으며, 문명비판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유용한 산문 형식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생활과 과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가 문학을 사유하고 있었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수필을 중요한 장르로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수필) 근대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문체의식

수필은 시나 소설과는 달리 작가의 직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백의 글쓰기이다. 체험적 소재, 고백적 문체, 반성적 사유라는 수필의 특성은 근대적 주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대적 주체의 등장은 내면의 고백이라는 표현양식을 열었다. 이러한 1인칭 글쓰기 주체와 표현 양식의 등장은 개인의 내면을 수용·수렴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진행되었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공론의 장에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적 정념을 담아내는 문체의 확립이 배면에 깔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⁵⁾

24) 임화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당시 그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카프의 탄압과 해산이라는 정치적 상황, 그리고 건강의 악화로 인해 그는 미산으로 내려가 자기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이후, “이즈음 와서는 잡지에는 물론 신문에까지 수필이 여간 많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서 “완전하든 간 불완전하든 간 문학이기 위하여는 장르로서의 특징과 구조의 규범을 형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며 체계적인 수필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수필론」에서 밝힌다.

1. 근대 문명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비판의식

서구 문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경도되었던 계몽기 지식인과 달리, 김기림은 서구의 근대와 자본주의에 대하여 비판적 자세를 견지한다. 젊은 날 체험한 동경 생활과 자본주의는 김기림에게 근대성에 대한 사유와 비판을 가능하게 해준 경험적 토대였다. 김기림의 문학에서 ‘근대성’이란 모더니즘과 동의어이다. 그는 모더니즘을 “문명 속에서 자라난 문명의 아들”로 보았으며, 문학을 “문명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감각·정서·사고”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⁵⁾ 김기림에게 근대성이란 새로운 문명(의 이기)과 등가의 의미였으며, 그 신문명의 전시장은 조선의 경성이었다. 1930년대 경성의 풍경과 도시 체험을 담은 김기림의 수필은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생활’이라는 현실적 차원 속에 어떻게 융해되고 감각되는가를 보여준 생생한 구체였다.

그의 수필에서 근대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과 자유연애, 속도의 쾌감을 즐기는 스케이트 등을 보면서 신평속과 신문명의 이기들에 대한 찬탄과 지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과도한 결혼 피로연과 삶을 포박하는 시계, 애완견을 데리고 산보하는 신사와 숙녀, 도시의 밤거리 등에서는 불편함과 혼란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그의 수필에는 인공낙원으로서의 백화점과 도시의 거리 풍경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백화점 쇼윈도에 별려놓은 트렁크와 단장이 노리개처럼 무척 가지고 싶다.”²⁶⁾며 소비 욕망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문명의 부정성에 대해 비판하는 이중적 시선이 그의 글에는 자주 드러난다. 근대문명에 대한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는 근대에 대한 인식의 균열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의 복판 이곳저곳에 뛰어난 근대적 데파르트먼트의 출현은 1931년도의 대경성의 주름잡힌 얼굴 위에 가장하고 나타난 근대의 메이크업이 아니고 무엇일까 (...) 이 메이크업한 메피스토의 늙은이가 온갖 근대적 시설과 기구감각으로써 젊음을 꾸미고 황폐한 이 도시의 거리에 다리를 버리고 저물어가는

25) 이은주, 「근대체험의 내면화와 새로운 글쓰기」, 『상허학보』16, 2006.2, p.62.

26)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인문평론』, 1939.10(『전집』2, p.56).

27) 김기림, 「여행」, 『조선일보』, 1937.7.25.~7.28(『전집』5, p.172).

황혼의 하늘에 노을을 등지고 급격한 각도의 직선을 도시의 상공에 뚜렷하게 부조하고 있다. (...) 밤 하늘을 채색하는 찬란한 일류이네이션의 인목을 현혹케 하는 변화-수백의 눈을 거리로 향하여 버리고 있는 들창—. 거대한 5,6층 빌딩채구 속을 혈관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엘레베이트(승강기), 옥상을 장식한 인공적 정원의 침엽수가 발산하는 희박한 산소—. 그리고 둥그런 얼굴을 가진 다람쥐와 같이 민첩한 식당의 웨이트레스와 자극적인 음료와 케이크의 냄새—. 최저가로 아니 때때로는 무료로 얼마든지 제공하는 여점원들의 복숭아빛의 감촉—.

—『도시풍경 1·2』에서²⁸⁾

이 글은 도시 경성의 변화가 김기림의 시선에 어떻게 포착·감각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급격한 각도의 직선”으로 표현된 근대적 건축물의 이미지는 경이로우면서 위협적인 존재이다. 낡고 황폐한 황혼의 도시였던 과거의 경성이 젊음의 감각을 발산할 수 있는 문명의 공간으로 바뀌었음을 긴장과 경이 속에 바라보는 시선이 위의 글에 드러나 있다. 밤하늘을 수놓는 전등불, 빌딩의 창, 백화점의 승강기, 백화점 옥상의 인공정원,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점원 등을 흥분과 감탄 속에 바라보면서도 “도회는 매춘부”²⁹⁾라는 부정적 시선이 이 글에는 함께 자리하고 있다.

백화점의 쇼윈도우 속에서는 빨강고 까만 강렬한 원색의 해수욕복을 감은 음분한 셀트로이드의 마네킹 인형의 아가씨들이 선풍기가 부채질하는 바람에 게이프를 날리면서 마분지의 바다에 육감적인 다리를 씻고 있다. 쇼윈도우 앞에 앞으로 기울어진 맥고모자 아래서는 우울한 눈들이 종이로 만든 명사십리의 솔밭을 바라본다.

—『바다의 유혹』에서³⁰⁾

28) 김기림, 『도시풍경 1·2』, 『조선일보』, 1931.2.21.~2.24(『전집』5, p.386).

29) 김기림, 위의 글, 389쪽.

백화점은 신문명의 전시장이었으며,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환상의 공간이기도 했다. “백화점 쇼오원도에 벌려 놓은 류링크와 단장이 노리개처럼 무척 가지고 싶다”³¹⁾라고 고백할 만큼 백화점은 소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당시 경성의 모습을 진정한 의미의 근대가 아닌 ‘가장한 근대’로 규정한다. “백화점 쇼원도우·마네진 인형·마분지의 바다·종이로 만든 명사십리”³²⁾ 등은 실체가 아닌 가장(假裝)의 표상들이다. 김기림이 꿈꾸던 신문명은 경성이라는 생활 공간 속에 실현되지 못한 채 백화점과 거리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그는 시선과 감각을 유혹하는 백화점에서 문명이 주는 풍요와 환상을 욕망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하는 이중적 시선을 보여준다. 감각적인 도시의 풍경을 날마다 마주하면서 김기림은 우울과 피로를 느낀다. 1930년대의 경성은 소비욕망만을 좇는 군상들이 지배하는 도시였다. 백화점의 층층대를 넘쳐흐르는 사람들, 분수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르주아와 같이 배가 나온 금붕어를 바라보는 사람들, 거리를 확보하는 미끈한 다리의 모던걸과 해수욕장 광고 앞에서 갈등하는 ‘나’의 모습 등은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주체성을 상실한 도시인의 모습이다.

자본의 상징인 백화점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의 시선이 복합적이라면, 그 공간 속을 드나드는 도시인들에 대한 시각은 비판적이다. 위의 인용문 결미에 암시되고 있는 자연을 향한 동경 역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김기림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을 ‘징역살이’로 비유하며 숲과 바다로 떠나고 싶은 열망³³⁾을 드러낸 바 있다. 물론 그러한 여행은 근대 문명의 대표적 이기인 기차가 있어 가능한 것이

30) 김기림, 「바다의 유혹」, 『동아일보』, 1931.8.27.~8.29(『전집』5, p.322).

31) 김기림, 「여행」, 『조선일보』, 1937.7.25.~7.28(『전집』5, p.172).

32) 위의 글. 같은 곳.

33) 위의 글, p.173.

며, 그 역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김기림은 『행복』이라는 글에서 “나는 거리를 걷어가는 성장한 부인이나 성대한 결혼식에 때로는 최대한 불행을 직감하는 대신 한 포기 ‘토마토’를 정신없이 가꾸는 농부, 밤을 새가며 실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에게서 차라리 최대의 행복을 바라보는 적이 있다”³⁴⁾고 고백하면서 “盛粧한 부인”과 “성대한 결혼식”으로 상징되는 근대의 문명에 대해서는 부정적·비판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서구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와 ‘과학자’에 대해 지극히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그의 수필은 근대 문명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복합적인 김기림의 시선과 의식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나날이 변모하는 경성의 모습과 자본주의의 상징물인 백화점에 대한 그의 시선에는 기자생활에서 체득한 현실 감각과 지식인으로서의 비판의식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과 그 상품을 사고 싶은 욕망,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도심의 빌딩과 ‘데파르트먼트’, 불빛이 반짝이는 화려한 밤풍경에 마음이 흔들리는 ‘나’, 주체성을 상실한 채 거리를 배회하는 군중 등, 도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는 흥분과 긴장, 혼돈과 우울이 뒤섞여있다. 그는 신문명을 예찬·지향했지만, 정작 근대화 되어가고 있는 경성의 풍경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그의 이런 태도는 서구의 문명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보였던 계몽기 지식인들과는 상이한 태도이다.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간 이러한 글들에서 우리는 수필의 장르적 독자성의 한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2) 구어체의 도입과 감각적 묘사

김기림은 일찍이 “수필이 가지는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문장에 있다”³⁵⁾

34) 김기림, 『행복』, 『조선일보』, 1940.7.18(『전집』5, p.243).

35) 김기림, 『수필을 위하여』, 『신동아』, 1933.9(『전집』3, p.109).

며 수필에서 문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장에 대한 김기림의 관심은 ‘어문일치(語文一致)의 문체’, ‘묘사(描寫)를 통한 사실주의(寫實主義)’, ‘감각적인 서정문체’ 등을 강조한 개성적인 문체론의 확립으로 구현된다. 김기림은 “말은 규범이기 전에 보다 더 존재며 사회적 약속이요 습성이요 행동”이며 “말은 보다 더 생활의 사실과 필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사회적 소산”³⁶⁾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가 말과 글을 지식체계로 접근하기보다 소통체계로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그의 어문일치(語文一致) 문체(文體)의 확립과도 상통한다.³⁷⁾ 그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초현실주의자의 내부독백(內部獨白) 같은” 글은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죽은 글이라고 비판하면서 글의 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지난 봄엔가 나는 먼 길에 지친 끝에 하루밤 숙면을 찾아서 동래온천에 들린 일이 있다. 처음에는 오래간만에 누워보는 온돌과 특히 병풍을 두른 방안이 매우 아담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밤중이 되니까 글썽 여관집인데 새로 한시 두시까지 장고를 때려부시며 떠드는 데는 실로 견딜 수 없어 未明을 기다려서 첫차로 도망친 일이 있다. 우리는 일부러 신경쇠약을 찾아서 온천장으로 갈 필요는 없다. 나는 돌아오면서 동래온천 시민 제군의 수면부족을 위해서 두고두고 걱정했다.

-『여행』 중에서³⁸⁾

기자로 재직한 김기림은 대중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한

36) 김기림, 『새 문체의 갈길』, 『신세대』, 1949.3(『전집』4, p.172).

37) 이와 같은 김기림의 주장은 해방 후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에 부합하는 문화운동의 일환이었다. ‘어문일치체’라는 새로운 문체의 수립은 “넓은 대중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는 한글의 철저한 사용으로 “민주적인 글자 기호의 확립과 대중화, 문체의 민주화”를 주창하며 민주문화의 건설을 주장하였다(『김기림 전집』5, p.193).

38) 김기림, 『여행』, 앞의 글, p.174.

어문일치의 문장을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점에서 그의 수필은 문학 대중화를 위한 대중적 저널리즘의 방법적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생산·유통되던 문학을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입장에서 대중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문체의 고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인용글은 구어체에 가깝다. “웬걸”, “글썄”, “일부러”와 같은 부사어를 문장에 의도적으로 삽입한 이러한 문장은 글을 말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처럼 말에 근접한 김기림의 수필 문체는 대중 독자를 고려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대상을 똑바로 노려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눈으로 보아서 바로 붙잡아 놓은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 — 그것이 근대(近代)의 이른바 관찰(觀察)의 정신이요 묘사(描寫)의 정신인 것이다. (….) 현대문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산문정신(散文精神) 또는 사실정신(寫實精神)이 또한 그 근본에 있어서 사실의 세계를 노려보는 그 튼튼한 객관적 추구력에서 출발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말과 글의 여러 형태』에서³⁹⁾

원근법의 등장은 형이상학적으로 재현된 추상적 풍경이 아닌 공간적 깊이와 사실적 현장을 그대로 담아낸 새로운 풍경을 등장시켰다.⁴⁰⁾ 관찰과 묘사가 강조되고 객관적 사실에 가깝게 형상화하고자 하는 욕망은 근대 과

39) 김기림, 「말과 글의 여러 형태(形態)」, 『문장론신강』, 1950.4(『전집』4, p.95).

40)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방법적 계기인 원근법과 소실점은 말과 글의 근원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근대적 시선의 출현은 소설의 중립화된 시점과 종결어미의 사용, 언문일치의 문장으로 문학의 새로운 규칙을 생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즉 원근법과 언문일치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이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다(이효덕, 『표상공간의 근대』, 박성관 역, 소명출판, 2008, pp.125-129).

학주의의 한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림은 “우리는 서양적인 근대문화가 다음 문화에 남겨둘 가장 중요한 유산의 하나는 과학적 정신=태도=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⁴¹⁾며 서구의 과학적 태도, 즉 실증주의나 합리주의를 받아들여야 신문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피력한다. 그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는 변화하는 세계의 실상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고 보고, 현실에 밀착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산문문체를 강조한 것이다. 사실적 묘사와 어문일치의 문장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태도가 문체에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여자의 스카트는 나래를 병아리와 같이 팔닥인다. 코론의 향수를 부채질하나 직수입은 아니다. 의연히 동양류의 회색의 암탉이다. 너는 날고 싶으나. (...) 태도에 몸부림치면 굴러오는 부영버스의 헤드라이트는 여차장의 까만 눈동자와 함께 눈물에 흐려 있다. 이국풍경의 그로테스크한 행렬이 본정 3정목을 흘러간다.

-『쟁그린 도시풍경』중에서⁴²⁾

빠른 속도로 변화는 경성이란 도시의 풍경을 김기림은 세밀하게 포착하여 묘사한다. 그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안과 밖을 드나들며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나날이 자본주화되어 가는 경성의 길과 속을 그는 감각적인 묘사로 수필에 담아낸다.

김기림의 수필은 급변하는 경성의 모습과 그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인의 일상을 교직해내면서 독특한 시대의 풍경을 그려낸다. 서구 에세이의 핵심인 비판적 시선과 함께 반성적 사유가 감각적인 문장 속에 담겨

41) 김기림, 『동양에 관한 단장』, 『문장』3권4호, 1941.4(『전집』6, p.53).

42) 김기림, 『쟁그린 도시풍경』, 『조선일보』, 1930.11.11(『전집』5, p.383).

있다. 김기림의 수필에 드러난 사실주의적 묘사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단순한 모방적 재현이 아니다. 그는 신문기자로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개성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감각적인 문장 속에 담아냈다. 현실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 상응을 원리로 삼았던 소박한 사실주의를 넘어선 갱신된 리얼리즘이라고 할 만하다. 김기림 수필의 문체가 지향하는 소통의 의지, 그리고 관찰과 묘사에 기반한 사실주의, 감각적인 서정의 문체는 개성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현실을 중시한 사실정신의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나가며

김기림은 문단활동 기간 내내 활발하게 수필을 썼고, 여러 편의 수필론도 발표했다. 시대적 흐름과 현장성을 중시하는 신문기자로서의 체험이 담긴 그의 수필은 저널리즘의 대중성과 깊이 접속하면서 1930년대의 도시 감성과 내면을 잘 드러냈다. 특히 1930년대 급속하게 근대화되어 가고 있는 경성의 풍경과 백화점으로 상징되는 소비자본과 군중들, 그리고 욕망으로 들끓는 개인의 일상과 내면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수필은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근대화되는 경성의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도시민의 일상을 담은 그의 수필에는 소비사회의 욕망과 함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그의 수필은 사실적인 묘사와 감각적인 필치로 1930년대 도시 경성을 개성적으로 그려내었다. 근대(문명)에 대한 당대인의 내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의 수필은 가치가 크다.

1930년대는 현대수필사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수필을 주목하면서 수필 창작이 크게 늘고 수필에 대한 논의도 왕성해졌는데, 김기림은 수필의 형식적 자유로움과 비판정신이 급변하는 시대를 담아내

는 데 유용하다고 보고 수필의 발전을 전망하였다.

김기림의 수필과 수필론은 한국수필문학사에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그의 수필에는 급변하는 사회상과 함께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함께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정착해가는 경성의 거리,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내면이 교직되어 있는 그의 수필은 당대 지식인의 내면을 입체적으로 그린, 개성적이고 생생한 문화적 심상지리라 할 만하다.

김기림의 수필(론)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학 세계를 총체적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필문학의 개화와 성장을 천착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김기림, 김광섭, 임화 수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조명은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기림, 『김기림 전집』(1~6), 심설당, 1988.
 ———, 「수필·불안·‘가톨리시즘’」, 『신동아』, 1933.9.
 ———, 「수필을 위하여」, 『신동아』, 1933.9.
 『박문(博文)』, 박문서관, 1938.10~1941.1.

2. 논문 및 단행본

-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 비평사』, 단대출판부, 1981.
 김광섭, 「수필문학소고」, 『문학』, 1934.1.
 김학동, 『김기림 평전』, 새문사, 2001.
 김현주,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문학좌담회, 『조선문학』, 1933.10.16.
 박정선 편, 『언제나 지상은 아름답다: 임화 산문선집』, 역락, 2012.
 신재기, 「임화의 수필론 연구」, 『우리말글』42, 2008.4.
 이은주, 「근대체험의 내면화와 새로운 글쓰기」, 『상허학보』16, 2006.2.
 이효덕 지음·박성관 옮김,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8.
 임 화, 「수필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전도현,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텍스트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한국학연구』47, 2013.12.
 조영복, 「김기림의 언론활동과 초기 글들의 성격」, 『한국시학연구』11, 2004.11.
 ———, 「김기림 수필에 나타난 일상성」, 『외국문학』43, 1995, 194쪽.
 조정환, 「내재적 리얼리즘」, 『오늘의 문예비평』92, 2014.3, 31쪽.
 한만수, 「1930년대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BK21 동아시아학융합사업단 ‘식민지 검열과 근대 텍스트’ 학술대회 자료집』, 2009.2.7.

Abstract

A Study on Kim Ki-rim's Supil(Essay)

Lee, Kyoung-Hee · Kim, Mun-Joo

In the 1930's, supil genre rose to the center of discourse of Literature. Pursuit of commercialism by journalism and audience's desires prompted the production of essays. The word 'supil'(essay) was named around this time. Explosive increases in essays caused inevitably production of discourses about essays. Then first critics and theory of genre on essay were introduced. In the controversies of the rage of essays, Kim Ki-rim expected supil would settle one of literature genres like the western essay. And he argued that freestyle of supil is the future art which is suitable to contain rapidly changing world. Kim Ki-rim's theory on essay has a special significance in emphasizing its temporality and historicity. Kim Ki-rim reflected Seoul's daily changing landscapes and citizens' experiences and live to his essays. His supil works are very meaningful to provide the age's landscape, cultural aspects, individual lives, and insights. It is a result of imprinting of Kim Ki-rim's sense as a journalist focusing on the field and society. His essays show critical views on modernity. Factual description and unique style in consistency between spoken and written words imply Kim Ki-rim's emphasis on communication with readers. Kim Ki-rim's theory on supil show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supil(essay) with Korean literature's view on the genre in the 1930's. His critical views in essays are traces of practice of his own theory of supil(essay).

Key Word : Kim Ki-rim, Theory on supil, essay, temporality and historicity, critical spirit, factual description

이경희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oksan97@hanmail.net

김문주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 kmj211@yu.ac.kr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

